《金瓶梅》敍述의 意圖的 缺陷*

李 無 盡**

<目次>

1. 들어가며
2. 《水滸傳》과 《金瓶梅》 - 人物性格의 變化
3. 욕망의 긍정과 경계
4. 잘못된 因果應報
5. 시간의 오류
6. 마치며

1. 들어가며

역사적 인물을 다룬 《三國演義》, 영웅호한들의 무용담을 그린 《水滸傳》, 삼장법사와 손오공 일행의 기이한 여정을 쓴 《西遊記》 등 이른바 四大奇書[1]라고 하는 明代의 대표적 長篇 章回小說 가운데 《金瓶梅》는 다른 세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소 황당하고 초인적인 주인공을 내세운 《三

* 본 논문은 2000년도 祥明大學校 韓中文化情報硏究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1) 四大奇書라는 명칭은 明代에 시작되었다. 李漁의 <三國演義序>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전에 弇州선생(王世貞)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四大奇書의 書目이 있었는데 그것은 《史記》, 《南華經》, 《水滸傳》, 《西廂記》라고 하였다. 馮夢龍 또한 四大奇書의 書目이 있어 《三國志演義》, 《水滸傳》, 《西遊記》, 《金瓶梅》가 그것이다.(昔弇州先生有宇宙四大奇書之目, 曰: 《史記》也, 《南華》也, 《水滸》與 《西廂》也. 馮夢龍亦有四大奇書之目, 《三國》也, 《水滸》也, 《西遊》與 《金瓶梅》也)" 이상의 기록으로 현재의 四大奇書는 馮夢龍이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王齊洲, 《四大奇書與中國大衆文化》, 湖北敎育出版社, 1991, p.18 참조) 한편 淸代의 《儒林外史》와 《紅樓夢》을 포함해 六大奇書라는 書目이 비교적 최근들어 그 사용빈도가 늘고 있는데, 이는 1958년 作家出版社에서 출판된 《古典小說戲曲叢考》에서 劉修業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후에 C.T Hsia(夏志淸)의 *The Classic Chinese novel* (Columbia Univ. Press, 1968)에서 이것을 사용하여 더욱더 보편화되었다. (Andrew Plaks, *The Four Masterworks of The Ming Novel*, Princeton Univ. Press, 1987, p.4 참조)

國演義》, 《水滸傳》, 《西遊記》와는 달리 《金瓶梅》에서는 현실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군상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욕망과 삶을 다뤘고, 또한 창작방법에 있어서도 전승되어온 說話나 話本을 기저로 창작된 여타 기서들과는 달리 《金瓶梅》는 비록 도입부와 결말부분에서 《水滸傳》의 일부 고사를 빌었지만 완전히 새롭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금병매》를 明代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고 있다.[2]

이러한 《금병매》의 문학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금병매》는 그 음란한 내용과 적나라한 묘사 때문에 구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함부로 입에 담기 곤란한 작품이었다. 명청대의 음서론과 비음서론으로 대표되는 금병매논쟁은 《금병매》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립과 수용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이것이 비록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천지간에 어떻게 이렇게 난잡한 책이 있는 것을 허용하겠는가? 응당 서둘러 태워버려야 하네. (此雖有爲之作, 天地間豈容有此一種穢書? 當急投秦火.)[3]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금병매》를 수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 내용의 음란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작자가 작품 속에서 보여준 삐딱하고 애매모호한 이중적 태도에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 즉 《금병매》의 작자는 표면적으로 유교적 윤리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사랑하는 사람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을 은밀하게 동정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불교의 인과응보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연하게 비구와 비구니를 멸시하고 있다. 부자와 권력자들을 질시하면서도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과 불운한 이들에 대해 가차없는 속물근성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은 일관된 세계관의 구성요소라고 보기 힘들다[4]. 따라서 작자가 견지한 양면적 태도와 서술

---

2) 일례로 앤드류 플락스(Andrew H. Plaks)는 The Four Masterworks of Ming Novel에서 사대기서 중 《금병매》를 맨 처음 순서로 논하면서 이러한 서술방식이 16세기 중국소설의 문체의 윤곽을 잡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여 명대를 대표하는 장회소설로 《금병매》를 수위에 두고 있다. (Andrew H. Plaks, *The Four Masterworks of Ming Novel*, Princeton Univ. Press, 1987, p.56)

3) 薛岡, <天爵堂筆餘> (黃霖, 《金瓶梅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987, p.235)

4) C.T Hsia, *The Classic chinese novel: A Critical Introduction*, Columbia Univ. Press, 1968, pp.180~181

상의 의도적인 결합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금병매》의 성격과 가치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연구의 온당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5]

2. 《水滸傳》과 《金瓶梅》-人物性格의 變化

주지하는 바와 같이 《金瓶梅》의 도입부는 《水滸傳》에서 빌려온 것이다.[6] 그런데 《水滸傳》과 《金瓶梅》를 비교해보면 《金瓶梅》의 작자가 의도적으로 《水滸傳》에 나와있는 형상을 조금씩 변화시킨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武松의 형상은 《水滸傳》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정의롭고 윤리적인 형상으로 작자는 武松을 보다 완벽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武松은 《水滸傳》과 《金瓶梅》 두 작품에서 정의와 윤리의 화신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潘金蓮이 그를 유혹하려 할 때 그는 이를 뿌리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난 이래뵈도 어엿한 대장부입니다. 추잡스런 짓을 하며 인륜을 짓밟는 개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치도 모르는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또다시 이런 짓을 하면 제 눈엔 형수로 비쳐도 이 주먹은 그걸 가리지 않을 겁니다..... 武二是個頂天立地的噢齒戴髮的男子漢, 不是那等敗壞風俗傷人倫的豬狗. 嫂嫂休要這般不識羞恥, 爲此等的勾當! 倘有些風吹草動, 我武二眼里認的是嫂嫂, 拳頭却不認的是嫂嫂! 再來休要如此所爲.[7]

물론 이러한 측면은 《水滸傳》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金瓶梅》에서는 전후의 많은 문맥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모습의 武松을 그려

---

5) 본고는 필자가 碩士學位 논문으로 제출했던 <《金瓶梅》의 兩面性 硏究>의 논지를 보완, 정리하였다.

6)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보이는 詞話本(혹은 萬曆本이라고도 함)의 경우에 해당된다. 또 다른 대표적인 판본인 崇禎本의 서두는 그렇지 않다. 詞話本은 武松이 景陽崗에서 호랑이를 때려잡는 장면에서 시작하는 반면 崇禎本은 西門慶과 그 패거리 10명이 서로 결의형제를 맺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다. 崇禎本에는 詞話本에 보이는 많은 오류와 음란한 표현을 삭제하고 있고 回目과 句法 또한 세련되게 다듬고 있어 대다수의 학자들은 詞話本을 崇禎本의 위에 두고 있으며 때문에 많은 연구의 주요 텍스트로 삼고 있다.

7) 《繡像金瓶梅詞話》 1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p.57

내고 있다. 먼저 처음 武松을 소개할 때 《水滸傳》에서는 武松이 柴進의 저택에서 심하게 주사를 부려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23회) 그러나 《金甁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으며 단지 柴進이 武松을 대단한 호걸로 보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 학질에 걸려 일년 남짓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고만 적고 있어(1회) 武松의 결점을 감춘 흔적이 역력하다.

두번째로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기 직전 武松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는 주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출몰하는 고개를 오른다. 그는 산신묘에 이르러 경양강에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방문을 보고 주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데 이 때 《水滸傳》에는 도로 내려가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까 한참을 망설이는 武松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나(23회) 《金甁梅》에서는 이 대목이 생략되고 단지 큰소리로 "빌어먹을 뭐가 무서워(怕甚麽鳥)"라고 말하며 유유히 고개를 향해 올라가는 武松의 단호한 모습만이 보일 뿐이다.

세번째로는 潘金蓮에 대한 武松의 태도이다. 《水滸傳》에서의 潘金蓮에 대한 武松의 모습은 한편으로 상호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武松이 그의 형 武大를 만나 형의 집으로 와서 형수인 潘金蓮과 처음 대면할 때의 정황을 《水滸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 武松이 그 여인을 보니,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 눈썹은 이른 봄 버들잎 같아, 언제나 운우를 그리는 정 어리어 있고, 얼굴은 춘삼월의 복사꽃 같아, 얼굴엔 정염이 감추어졌네. 가는 허리 하늘하늘 아름다워, 날아온 제비 피고리 묶어 둔다. 나긋나긋한 입가엔 벌 나비 꼬이는구나. 옥같이 고운 얼굴 말하는 꽃이런가, 꽃같은 예쁜 몸매 향기 뿜은 옥 같구나. 武松看那婦人時, 但見: 眉似初春柳葉, 常含著雨恨雲愁; 臉如三月桃花, 暗藏著風情月意. 纖腰裊娜, 拘束的燕懶鶯慵; 檀口輕盈, 勾引得蜂狂蝶亂. 玉貌妖嬈花解語, 芳容窈窕玉生香.[8]

武松에 눈에 비춰진 형수 潘金蓮의 모습을 위와 같이 묘사하였을 때 그는 자신의 형수를 대하면서 그녀의 용모를 구석구석 모두 살펴본 것이 되고만다. 때문에 춘정을 품은 金蓮의 모습을 보고 미색이라는 것을 느끼는 무송의 모습은 아무래도 金蓮의 유혹을 뿌리칠 때의 그의 윤리적인 모습을 낯설게 만드는

8) 《水滸傳校注》, 臺北: 里仁書局, 1994, p.401

요인이 된다.

《金瓶梅》의 작자 역시 이러한 《水滸傳》의 모순점을 인식한 듯하다. 《金瓶梅》에서는 武松이 潘金蓮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에서 상술한 《水滸傳》의 이러한 정경이 모두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金瓶梅》에서 武松은 형수의 요염한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숙이고만 있다.[9]

이렇듯 변화된 武松의 형상을 통해 《金瓶梅》의 작자는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와 음탕한 潘金蓮은 모두 인간에게 유해한 존재라는 점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이러한 해악을 제거하는 武松의 의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武松의 의기로운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측면은 그가 潘金蓮을 살해할 때 《水滸傳》의 그것보다 더욱 처참하게 그리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水滸傳》에서 武松은 潘金蓮 만을 죽이고 이웃집의 王婆는 살려두어 법의 처분에 맡기며 자신 역시 현청에 가서 자수한다. 그러나 《金瓶梅》에서는 潘金蓮과 王婆를 제거하고 심지어는 王婆의 아들 王潮兒까지도 제거하려 하였으며 왕파의 집으로 가서 潘金蓮의 몸값으로 주었던 은전을 찾아 양산박으로 향한다. 이는 재물로 국법도 좌우할 수 있었던 당시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감으로 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 潘金蓮과 같은 반윤리적 인간군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권선징악의 서술 맥락은 작품의 곳곳에서 와해되고 있다. 《金瓶梅》 제9회에서 武大가 西門慶과 潘金蓮, 王婆 등에게 살해되고 난 후, 현지사의 심부름을 갔다 온 武松은 형의 죽음을 의심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를 다음과 같이 물어보며 돌아다닌다.

> "형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형수님은 누구에게 시집가셨습니까?
> 이웃 사람들은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서문경이 두려워 누구도 상대하려 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 "도두님, 우리에게 물어봐도 별 수가 없어요. 저 왕파 할머니가 바로 이웃에 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 그런데 이 때 말 많은 이가 있어, 배 팔러 돌아다니는 운가와 검시인두 하구 두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고자질을 해댔다. 我哥哥怎的死了? 嫂嫂嫁得何人去了? 那街坊鄰舍, 明知此事, 都懼怕西門慶, 誰肯來管? 只說: 都頭不消訪問, 王

9) 周中明, 《金瓶梅藝術論》,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2, pp.2~23

婆在緊隔壁住, 只問王婆就知了. 有那多口的說: 賣梨的鄆哥兒與件作何九二人, 最知詳細.10)

만일 작자의 논지를 권선징악 혹은 과도한 욕망의 경계라고 파악하고 작품을 살펴본다면 위의 서술구조는 이러한 논지와는 상반되는 면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작자는 《水滸傳》에서의 형상보다 더욱 무송의 윤리적 측면을 강화하여 武松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삭제하였고 이로 인해 무송은 진정한 영웅호걸로, 潘金蓮은 더욱 더 사악한 존재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潘金蓮이 西門慶과 간통하고 무대를 살해하고, 武松이 돌아와 형의 복수를 하려는 장면에서 주위 사람들은 西門慶의 돈과 세력이 무서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만일 이러한 맥락으로 작품을 읽다 보면 이 때 潘金蓮과 西門慶이 저지른 죄악을 알려준 사람은 진정 용기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알려준 사람 역시 西門慶의 보복이 두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金瓶梅》에서 작자는 이 사람에 대한 수사적 표현을 단지 '말 많은 이(多口)'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金瓶梅》에서 서술된 논지가 양면적이라는 사실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金瓶梅》를 읽는 사람은 단순한 권선징악이나 경계론 -욕망에 대한 과도한 추구는 결국 西門慶처럼 비참한 죽음을 낳을 뿐이다-을 인식하면서도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武松의 형상을 더욱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그려내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武松을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은 작자의 논지가 양면적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金瓶梅》에는 이외에도 많은 결함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결함들을 찾아보고 아울러 계속해서 그 결함의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욕망의 긍정과 경계

《金瓶梅》의 작자는 표면상 윤리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로 과도한 인욕을

10) 《繡像金瓶梅詞話》 1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pp.151-152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는 상호 모순적이며 이질적인 목소리이다.

《金瓶梅》의 제 1회에서 작자는 項羽와 劉邦의 고사를 통해 여색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돌연 다른 논지의 이야기를 끄집어낸다.

> 그렇지만 정실의 첩에 대한 태도는 지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척씨의 재난은 우희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 그러므로 첩이란 충실히 그 지아비를 섬겨도 목을 안전하게 지키기가 좀체로 어렵다 ..... 척부인 묻힌 곳, 그대는 아느냐? 못미치리, 우희묘터 있음에.....雖然, 妻之視妾, 名分雖殊, 而戚氏之禍, 尤慘于虞姬. 然則妾婦之道, 以事其丈夫, 而欲保全首領于牖下, 難矣! ..... 戚姬葬處君知否? 不及虞姬有墓田.[11]

위 문장이 나오기 전에 등장한 項羽와 劉邦이 색에 빠졌기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는 이야기의 논지와 戚姬과 虞姬를 비교한 의도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項羽와 劉邦의 고사는 색에 대한 탐닉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계성 발언인데 반해 虞姬와 戚姬의 비교는 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오히려 虞姬와 戚姬를 통해 入話 이후에 등장하는 西門慶의 첩들에 대한 동정의 소지를 남긴다. 즉 예컨대 潘金蓮이 吳月娘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武松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리라는 등의 논지로 들릴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항우가 여색 때문에 목숨을 잃고 유방이 여색을 멀리하여 승리를 거뒀는가의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부분의 논지가 도리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작자의 논지는 25회에도 계속된다. 宋惠蓮과 간통한 西門慶은 그녀의 남편 來旺이 돌아와 말썽을 부리자 이를 처리하려다 宋惠蓮의 말을 듣고 來旺에게 은화 천냥을 주어 소금 장수 王四峰의 구명비를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사실 남편 來旺에게 돈 천냥을 빼돌려 장사를 하게 하려는 宋惠蓮의 계획이었으며 來旺에 대한 宋惠蓮의 마지막 배려로 宋惠蓮 자신이 西門慶에게 남아 호사스런 생활을 계속하는데 대한 일종의 미안함과 보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潘金蓮은 이러한 宋惠蓮의 계략을 눈치채고 西門慶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계책을 세워 來旺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한다. 이 때

11) 《繡像金瓶梅詞話》 1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pp.42-43

작자는 西門慶의 심경을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대신한다.

> 그 말을 듣고 西門慶은 취했다가 겨우 깬 기분이다. 바로 '몇 마디에 열리는 군자의 길, 한마디 말에 깨어나는 꿈속의 인물'이라는 것. 數語撥開君子路, 片言提醒夢中人.[12]

남편을 위해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려는 宋惠蓮의 계책을 훼방하는 潘金蓮의 행위와 西門慶의 반응을 작자는 '군자의 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작자의 본래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혹 이를 풍자적 표현이나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西門慶과는 상반된 입장이었던 宋惠蓮의 아버지 宋仁이 딸의 죽음을 의심하고 이를 밝히려다 西門慶의 계책으로 병을 얻어 죽을 때의 표현을 보면 그것 역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무지한 사람이 오도를 만나고 지옥의 아귀가 종규를 만난다. 失曉人家逢五道, 浜冷飢鬼撞鍾馗[13]

자식의 죽음을 억울해 하고 이에 항의하는 宋仁의 마음은 사실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자는 西門慶의 악한 행위의 묘사하면서 군자라는 표현으로 쓰는 한편 宋仁의 정당한 행위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작자가 사용한 修辭를 분석해보면 《金瓶梅》를 단순히 세상에 대한 비난이나 풍자 그리고 경계라는 한가지 목소리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金瓶梅》의 논지는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내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결함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또 다른 주목할 표현으로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不亦樂乎라는 표현의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은 《論語》의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의 구절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인 듯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金瓶梅》에서는 이러한 수사적 표현이 다른 이가 사통하는 것을 몰래 훔쳐볼 때 혹은 남녀가 서로 사통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첫번째 사용은 8회에 등장한다. 이 때는 武大의 기일로 西門

12) 前揭書, p.377
13) 前揭書, p.400

慶과 潘金蓮은 보은사에서 승려들을 불러 제를 지내고 武大의 위패를 치워버리려 한다. 오후에 들어 마침 西門慶과 潘金蓮이 관계를 맺으며 음란한 말을 주고받을 때 마침 승려 중 하나가 손을 씻다 이 소리를 듣는다.

> 이러한 그들의 대화를 뜻밖에 까까머리가 다 듣고 말았으니 또한 즐겁지 않았겠는가! 不想都被這禿廝聽了個不亦樂乎![14]

두번째 사용은 61회에서 보인다. 西門慶과 王六兒가 관계를 갖고 서로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을 하인 胡秀가 문 밖에서 엿보며 듣는다.

> 여기서 두 사람(서문경과 왕육아)의 일거수 일투족을 호수가 모두 들었으니 또한 즐겁지 않았겠는가! 這裡兩個一動一靜, 都被這胡秀聽了個不亦樂乎![15]

세번째 사용은 78회 후반부에서 보인다. 何千戶의 부인 藍氏를 보고 음심이 생긴 西門慶이 그들을 보내고 공교롭게도 마주친 하인 來爵의 아내와 관계한다.

> 서문경이 옷을 벗기고 바지를 내려 그녀를 온돌에 눌러놓고 그녀의 다리를 들며 해대니 또한 즐겁지 않았겠는가! 兩個解衣褪褲, 就按在炕沿子上, 掇起腿來, 被西門慶就聳個不亦樂乎![16]

네번째 사용은 83회에서 보인다. 潘金蓮의 하녀 秋菊은 吳月娘에게 밀고할 생각으로 潘金蓮과 陳經濟가 사통하는 것을 훔쳐본다.

> 이렇게 생각하며 빤히 들여다보니 또한 즐겁지 않았겠는가! 于是瞧了個不亦樂乎![17]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은 99회에 다시 한번 사용된다. 陳經濟와 春梅가 사통하며 장승을 처치해야 했다고 서로 말을 주고 받을 때 張勝은 밖에서 이를 듣고 있다.

---

14) 前揭書 p.143
15) 《繡像金瓶梅詞話》 2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p.420
16) 《繡像金瓶梅詞話》 3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p.192
17) 前揭書, p.267

두 사람은 방안에서 이야기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밖에서 장숭이 죄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를 엿들은 장숭이 어찌 즐겁지 않았겠는가! 兩個只管在內說, 却不知張勝窗外聽了個不亦樂乎![18]

《論語》의 修辭를 타인의 성관계를 몰래 엿볼 때 사용했다는 것은 기존 체제와 질서에 대한 작자의 굴절된 시각을 드러내는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익숙한 수사를 사용하여 성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 유발을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19] 따라서 이러한 不亦樂乎에 대한 사용 역시 《金瓶梅》의 담론이 경계나 질책, 세태풍자 만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작자는 한편으로 명말에 유행했던 황금만능과 윤리의 붕괴라는 말기적 증후를 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며 아울러 부정적인 인물들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세상을 경계하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심층적으로는 욕망을 긍정하고 나아가 이를 탐닉하려는 작자의 의도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잘못된 因果應報

작자는 《金瓶梅》에서 인과응보를 작품 전개의 중요한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西門慶이 潘金蓮을 통해 武大를 독살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도 역시 潘金蓮에 의해 春藥의 과다복용으로 숨지게 되는 것이나, 西門慶이 자신의 아들 孝哥로 환생하여 보정선사를 따라서 출가하는 것, 심지어 潘金蓮이 가무음곡을 배운 王招宣 집안의 林氏 부인이 西門慶과 간통하게 되는 것 등은 모두 이러한 인과응보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張竹坡는 그의 독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金瓶梅》를 지은 이는 몸을 바꾸어 보살의 인과법을 증거할 수 있었다. 후세 사람들을 생각해서 말을 한 곳이 마치 기린의 발과 봉황의 부리처럼 신비로운 것은

18) 前揭書, p.487

19) Peter H. Rushton, *The Jin Ping Mei and the Nonlinear Dimensions of the Traditional Chinese Novel*, Mellen Univ Press, 1994, pp.51-68

이러한 연유이다. 作《金瓶》者, 必能轉身, 証菩薩果. 蓋其立言處, 純是麟角鳳嘴文字故也 <金瓶梅讀法 58>

작자는 작품의 여러 곳에서 불교의 교리를 인용하여 -이러한 불교의 교리와 고사는 종종 吳月娘이 집으로 들이는 비구니들에 의해 설파된다- 《金瓶梅》의 권선징악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와 인과응보의 법칙은 《金瓶梅》라는 작품의 내용 전개에 있어 그 흐름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축의 논지를 작자는 순간순간마다 뒤엎고 있다. 즉 작자는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애하여 불교에 대한 비판을 가해 그가 제시한 줄거리 전개의 기본 틀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 한다. 승려의 대한 곱지 않은 그의 시선도 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본래 이런 비구, 비구니, 매파 등의 떨거지는 대갓집에 추천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 패거리로 말하면 깊은 내실까지 파고 들어가 부인들을 상대로 지옥, 극락 이야기를 한다든가, 경을 풀이해 준다는 핑계로 몰래 사람을 꾀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십중팔구 이런 떨거지들 때문에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납니다.

아무튼 중은 언어도단, 안방에서 여자를 호린다. 이것들이 불도를 성취하면, 서방정토는 깜깜한 암흑 된다. 看官聽說. 但凡大人家, 似這樣僧尼牙婆, 決不可攙擧. 在深官大院相伴着婦女, 俱以講天堂地獄, 談經說典爲由. 背地里說釜念款, 送煖偷寒, 甚麽事兒不幹出來! 十個九個, 都被他送上災厄. 有詩爲證:最有緇流不可言, 深宮大院哄嬋娟, 此輩若皆成佛道, 西方依舊黑漫漫.[20]

이러한 승려 특히 비구니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명말 소설에 종종 등장한다. 예를 들어 《拍案驚奇》 卷六 <酒下酒趙尼媼迷花 機中機賈秀才報恩>에도 소위 三姑六婆는 사람들이 집에 들이기 가장 꺼리는 인간군상들이라고 하고 있고, 비구니가 암자에서 여인과 외가 남자를 간통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21] 이러한 불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그 당시 사회에 만연된 풍조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金瓶梅》에서 나타난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이보다 더욱 근원적인 것이다. 예컨대 74회에서는 月娘이 비구니 설

20) 《繡像金瓶梅詞話》 2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p.90
21) 凌濛初, 《拍案驚奇》, 人民出版社, 1991, p.94

씨에게 불가의 인연법을 설파한 내용의 <黃氏女卷>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또 《金瓶梅》의 75회에서는 전회의 내용을 이어 불문에 귀의하고 수행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開場詩와 본문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작자는 바로 다음 구절에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 오월랑은 이러한 (불법의) 은혜를 입기 위해 평소에 경문을 즐기고 부처를 공경하여 보시도 하였지만 그래도 만삭이 다된 몸에 이러한 경문은 듣지 말아야 했다. 비록 인간의 부귀빈천과 장수요절이 부모의 기를 받아서 되었다고는 하지만 태아로 있을 때는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옛 사람들은 임신기간에 돌아앉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고 요사한 색은 보지 않으며 언제나 시를 읽고 글을 보고 금옥이나 진귀한 것을 보며 장님들에게 옛 노래를 들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자식을 보면 필경 이목이 단정하고 행실이 바르며 커서는 똑똑하게 된다. 이것이 주문왕이 가르친 태교의 방법이다. 그런데 오월랑은 임신시기에 있어서도 승려들에게 불경이야기를 하게 하고 생사윤회에 관한 설법을 이야기하게 하였으니 결국 후에 하나의 보살을 낳게 되고 태아에서부터 아이를 보살에게 맡겨 뒷날 그가 불교를 믿어 집을 떠나가게 하였고 자기는 그 인연을 놓쳐버리게 되었는데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없다. 有如吳月娘者, 雖有此報, 平日好善看經, 禮佛布施, 不應今此身懷六甲, 而聽此經法. 人生貧富、壽夭、賢愚, 雖蒙父母受氣成胎中來, 還要懷姑之時, 有所應召. 古人妊娘懷孕, 不倒坐, 不偃臥, 不聽淫聲, 不視邪色, 常玩弄詩書金玉異物, 常令瞽者誦古詞. 後日生子女, 必端正俊美, 長大聰慧. 此文王胎教之法也. 今吳月娘懷孕, 不宜令僧尼宣卷, 聽其生死輪迴之說. 後來感得一尊古佛出世, 投胎奪舍, 日後被其顯化而去, 不得承受家緣, 蓋可惜哉![22]

이러한 논지는 작자 자신이 작품의 전개방식 중 중요한 장치로 쓴 인과응보의 장치나 윤회에 대한 본래의 긍정적인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즉 西門慶의 유복자인 孝哥의 출가를 西門慶의 업보가 아닌 吳月娘의 잘못된 태교로 돌리는 것은 善人善果 惡人惡果라는 인과응보의 기본적인 의미마저 무시한 것으로 인과응보를 통한 경계나 질책이라는 본래 의도와는 상반되는 중요한 결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작자의 모호한 의도는 작품의 전개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모순 점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작자가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사용한 현세에서의 인과응보의 결함을 살펴보겠다.

西門慶의 하인인 玳安과 來保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玳安은 작은 西門慶

22) 《繡像金瓶梅詞話》 3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p.91

이라고 할 정도로 西門慶을 항상 따라 다니는 하인이다.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좋지 않은 짓만을 저지르고 다닌다. 47회에서는 악당 묘청을 西門慶에게 연결시켜 주는 대가로 왕육아에게 은자 20냥을 받았고, 78회에서는 西門慶과 賁四의 마누라가 관계한 후에 西門慶이 집으로 돌아가자 방금 주인과 사통했던 賁四의 마누라와 관계한다. 하인 來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西門慶이 죽자 韓道國과 짜고 西門慶의 돈을 빼돌리고 몇 차례 걸쳐 吳月娘을 속였으며, 吳月娘이 太師府에 보낸 迎春과 玉簫를 도중에 겁탈한다. 그런데 이러한 玳安과 來保에게 일언반구의 惡報도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玳安의 경우 출가한 효가를 대신해 吳月娘의 양자가 되어 가업을 이어 받아 西門小員外라고 불리는 행운을 얻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武大와 宋惠蓮의 아버지 宋仁은 억울하게 죽어간다.

현실세계의 불공평함뿐 아니라 내세로의 재생 즉 윤회에서도 이러한 결함은 발견된다. 마지막 제100회에서 西門慶은 보정선사에 의해 동경 성내에 있는 부호 沈通의 둘째아들 沈鉞로 환생한다. 이 때 潘金蓮, 春梅, 李甁兒 등의 주요 등장인물들도 보통 이상의 신분으로 모두 환생하였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항상 시달리면서 생활해온 西門慶의 딸 西門大姐과 孫雪娥는 가난한 집에 자식으로 환생한다.

이렇듯 윤회와 인과응보 등의 장치와 불교에 대한 가변적 담론체계는 때때로 인욕의 긍정과 경계, 선과 악 등의 양극을 서로 모순되게 오간다. 표면상의 경계와 심층적인 내면의 탐닉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두 축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견 결함처럼 보이는 작자의 일관되지 않은 이중적 담론체계는 명말의 모순적인 사회상과 가치체계를 반영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본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적 결함으로 인해 《金甁梅》에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기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시간의 오류

논지상의 오류이나 수사상의 결함 외에도 《金甁梅》에는 많은 수치상의 오류가 보인다. 상술한 결함이 작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굴절되고 이중적인 면모를

나타내주는 것이라면 전후 사정이 맞지 않는 시간상의 오류는 《금병매》가 지어졌을 때 이루어진 창작방법이나 개작여부에 대한 많은 편린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금병매》에 등장하는 시간상의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첫번째의 모순은 제10회와 제12회에 걸쳐 등장한다. 武松이 李外傳을 西門慶으로 오인하고 죽인 후 청하현의 지사가 동평부의 지사 陳文昭에게 보내 보고서에서 그 일자는 政和 3년 8월로 되어있다[23]. 그 후 西門慶의 집에서 潘金蓮이 허세를 부려 孫雪娥를 매질하게 하고 西門慶은 유곽 李桂姐의 집을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것이 10회, 11회, 12회 초반의 전반적 내용이다. 이것으로 길어야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12회 초반부에서 1년의 세월을 건너 뛰어 정화 4년 7월 27일이 된다[24]. 《金瓶梅》의 작품배경은 政和 2년(서기 1113년)에서 建炎 원년(서기1127년)까지의 역사적 사건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宣和 4년(서기 1119년)까지 西門慶 집안의 이야기가 제99회까지 길어야 한 달을 건너뛰지 않고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25] 이러한 구성상의 특징으로 볼 때 10회와 12회에 걸친 1년 간의 걸친 기간의 누락은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다.

두번째의 모순은 제13회에서 발견된다. 13회에서는 정화 4년 6월 14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재 되어있다.[26] 이 날 花子虛는 기녀 吳銀兒의 생일을 빌미로 西門慶을 유곽에 초대한다. 그런데 이는 구성상 일자가 잘못 표기된 것이다. 첫번째 모순에서 보았듯이 제12회에는 같은 해 7월 27일과 28일 西門慶의 생일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은 13회에 중반의 일자 표기로도 가늠할 수 있다. 西門慶이 花子虛와 應伯爵 등을 꾀어 유곽에서 놀게 하고 자신은 花子虛의 처 李瓶兒를 유혹하려 하는 과정이 전개된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9월 9일 중양절이 되었기 때문이다.[27] 이러한 까닭에 13회 전반부의 6월 14일 표기

23) 蘭陵笑笑生, 《繡像金瓶梅詞話》 1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p.161 이하 萬曆本으로 약칭함. 《新刻繡像批評金瓶梅》 上卷, 香港: 三聯書店, 1990, p.121 이하 崇禎本으로 약칭함.

24) 萬曆本 1卷, p.181. 崇禎本 上卷, p.142.

25) 이후의 연대와 일자는 작품과 魏子雲의 펴낸 《金瓶梅編年紀事》를 참조할 것. (魏子雲, 《金瓶梅編年紀事》, 巨流圖書公司, 1981)

26) 萬曆本 1卷, p.199 崇禎本 上卷, p.159 崇禎本에서는 6월 14일이라는 일자를 생략하여 萬曆本에서의 오류를 수정하였다.

27) 萬曆本 1卷, p.202 崇禎本 上卷, p.163

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표기가 되려면 8월간에 있었던 일이어야 한다.

세번째 모순은 19회와 20회에 걸쳐 발생한다. 西門慶은 蔣竹山을 두들겨 준 뒤 마지못해 李瓶兒를 6번째 첩으로 들이는데 이 때가 政和 5년 8월 20일의 일이다.[28] 西門慶은 李瓶兒를 첩으로 들이고도 화풀이로 사흘간 李瓶兒의 방에 들어가 동침하지 않는데 이에 李瓶兒는 전족용 천으로 자신의 목을 맨다.[29] 그 다음날 西門慶은 李瓶兒의 방에 들어가 화풀이를 하고 그녀와 동침하는데 李瓶兒가 西門慶에게 시집온 지 나흘 그러니까 8월 24일의 일이다[30]. 그런데 20회 초반에서 동일한 날에 일어난 일이 8월 20일로 표기되어 있다.[31] 계속해서 그 다음날의 사건이 기술되어 있는데 李瓶兒가 吳月娘에게 문안을 하고 西門慶의 처첩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西門慶이 들어와 그 다음날 초대장을 보내 친척들과 손님들을 불러 8월 25일에 상면하는 연회를 갖도록 한다.[32] 그런데 문맥상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날이 8월 25일이 되는데 따라서 이것은 19회의 일자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20회의 잘못된 일자로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네번째 모순은 25회와 27회에 걸쳐 발견된다. 西門慶이 來旺의 처 宋惠蓮과 간통한 후 來旺이 이를 알아차려 난리를 부리고 西門慶은 來旺과 吳지배인 두 사람을 동경에 보내 蔡京의 생일선물과 소금장수 王四峰의 석방주선비 은 천 냥을 가지고 가게 하려다 潘金蓮의 만류로 보내지 않는데 이 때가 정화 6년 3월 26일이다.[33] 그런데 26회에서 西門慶은 이를 후 5월 28일 來保와 吳지배인을 동경에 보낸다.[34] 이로써 25회 혹은 26회의 일자 가운데 하나는 착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來旺을 도둑으로 몰아 멀리 유배를 보내고 宋惠蓮이 부끄러워 목을 매고 자살한 후 다시 27회에서 西門慶이 來保와 吳지배인에게 5월 28일 동경으로 蔡京의 생일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는 장면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35] 즉 동일한

28) 萬曆本 1卷, p.290 崇禎本 上卷 p.243
29) 萬曆本 1卷, p.291 崇禎本 上卷, p.244
30) 萬曆本 1卷, pp.292-297 崇禎本 上卷, pp.244-251
31) 萬曆本 1卷, p.297 崇禎本 上卷, p.249
32) 萬曆本 1卷 pp.303-304 崇禎本 上卷 p.256
33) 萬曆本 1卷, p.376-378 崇禎本 上卷 pp.326-327
34) 萬曆本 1卷 p.381 崇禎本 上卷 p.329 崇禎本에는 5월 28일을 3월 28일로 고쳐 적고 있다.
35) 萬曆本 1卷 p.400 崇禎本 上卷 p.348

사건이 다른 시점에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번째는 29회와 79회에 나오는 西門慶의 나이의 모순이다. 29회에서 吳神仙이 西門慶과 그 처첩들의 사주와 관상을 볼 때 西門慶은 자신이 병인년 7월 28일 생으로 29살이라고 한다.[36]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모순이 발견된다. 내용 전개상 이 때는 政和 6년 병신년(1116년)이기 때문에 병인년에서 병신년까지의 햇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31살, 만으로도 30살임을 알 수 있어 29살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2년이 지난 79회에서 그는 33살로 죽기 때문에[37] 더더욱 29살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번째 모순은 49회와 53회에 걸쳐 발견된다. 49회에는 政和 7년 4월 17일 王六兒와 李嬌兒의 생일에 일어난 일들이 서술되어 있다. 이 날 西門慶은 胡僧으로부터 방중술에 효험이 있는 환약을 받고 王六兒, 李甁兒 등과 각각 관계할 때 이 약을 시험해 본다. 그 다음날 潘金蓮은 이에 한을 품고 吳月娘의 방에 들어가 농간을 부린다. 4월 19일에는 來保가 西門慶의 심부름으로 동경에 가고 西門慶이 潘金蓮과 관계할 때 胡僧이 준 약을 사용한다. 4월 20일에는 비구니 왕씨와 설씨가 吳月娘과 여러 첩들에게 법문을 들려주고 저녁에 西門慶은 다시 潘金蓮과 관계한다. 4월 21일에는 22일 벽돌공장 劉太監의 집에서 여는 연회에 참석해달라고 安主事와 黃主事가 초대장을 보낸다. 4월 22일에는 陳經濟가 潘金蓮과 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잠을 못 이루다가 다음날 즉 4월 23일 저녁에 다시 潘金蓮을 유혹하여 관계를 갖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이 때 연회에 갔던 西門慶이 집에 돌아온다. 혹 연회를 22, 23일 양일에 걸쳐 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곧 부정된다. 같은 날 月娘이 비구니 왕씨에게 임신이 되는 약을 받은 뒤 하는 말에서 내일이 임자일이라고 하여 그 오류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구성상 하루의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38] 陳經濟가 하루에 두번 潘金蓮을 유혹했다고 하거나 연회가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면 구성상의 문제가 없겠지만 작품 속에 나타난 일자는 명백히 그 오류를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외에도 《金甁梅》에는 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 청대의

36) 萬曆本 1卷, p.429 崇禎本 上卷 P.373
37) 萬曆本 3卷, p.214 崇禎本 下卷 p.1154
38) 萬曆本 2卷, pp. 211~288 崇禎本 上下卷 pp.625-698

張竹坡는 이러한 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이는 모두 작자가 일부러 들쑥날쑥하게 한 것이다. 왜인가? 이는 이 책 만이 갖는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이다. …… 또한 만일 삼년에서 오년 사이의 일들을 육갑의 순서로 흐트러짐 없이 배열한다면 진정 서문경의 일기장과 같이 될 것이고 이것을 직접 목도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을 것이다. 때문에 작자는 일부러 연대의 순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此皆作者故爲參差之處. 何則? 此書獨與他小說不同. …… 若再將三五年間, 甲子次序排得一絲不亂, 是眞個與西門計帳簿, 有如世之無目者所云者也. 故特特錯亂其年譜.<金瓶梅讀法 37>[39]

張竹坡의 견해대로라면 이러한 시간의 결함 역시 작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결함들과는 달리 시간적 수치상의 결함은 명말 《金瓶梅》 전파과정에서의 오류로 보여진다. 沈德符는 《萬曆野獲編》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얼마 되어 않아 《金瓶梅》가 江蘇지역에서 유행하였다. 그러나 본래 53회에서 57회는 (내가 보았던) 원본에는 없어 두루 찾아도 구할 수 없던 것이었다. 한 식견이 얕은 유생이 이를 보충하여 판각하였는데 속되고 비루할 뿐 아니라 때때로 오 방언을 사용하였고 앞뒤의 맥락 또한 연결되지 않았다…… 未幾時, 而吳中懸之國門矣. 然原本實少五十三回至五十七回, 遍覓不得, 有陋儒補以入刻, 無論膚淺鄙俚, 時作吳語, 卽前後血脈, 亦絶不貫串……[40]

《萬曆野獲編》의 이와 같은 언급으로 우리는 《金瓶梅》가 처음 출판되었을 때의 몇가지 정황을 살필 수 있는데 첫째로 《金瓶梅》는 江蘇지역에서 판각되었으며, 두번째로 한 유생이 《金瓶梅》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였고, 세번째로 이 때 《金瓶梅》에 오지방의 방언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41] 그러나 53회와 57회에 등장하는 오방언의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오방언은 등장하는

---

39) 黃霖, 《金瓶梅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987, p.76
40) 黃霖, 《金瓶梅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987, p.230
41) 劉一之의 통계에 따르면 나를 포함한 우리라는 의미의 인칭대명사 '咱'는 《金瓶梅》에서 모두 230번 사용되고 있으며 53회에서 57회에 이르는 부분에도 24차례 사용되고 있는데 53회에서 57회까지의 부분에서는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라는 일인칭 단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3회에서 57회에 걸쳐 누락된 부분이 한 유생에 의해 보충되었다는 《萬曆野獲編》의 언급은 믿을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魏子雲, 《小說金瓶梅》, 臺北: 學生書局, 1988, pp.127-128)

데[42] 이러한 사실은 沈德符가 알고 있었던 《金瓶梅》 개편의 정황보다 더욱 광범위한 개작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추정으로 시간상의 오류는 《金瓶梅》 개작당시 발생한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金瓶梅》라는 작품 성립될 때까지 개입되었던 많은 이들의 가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마치며

《金瓶梅》에는 많은 결함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작자의 상호 모순적인 태도와 나아가 당시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했던 시대조류의 양면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嘉靖 중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행하는 풍속은 날로 내리막 길을 걸어 관습은 교만, 각박하며 서로 욕망에 대한 탐닉과 편안함만을 바란다. 흥겹게 잔치를 열어 흥청망청 마셔대는 것을 통이 크다고 하고, 맛난 음식과 아리따운 여인을 들어 예의가 지극하다고 한다. (由嘉靖中葉以抵于今, 流風愈趨愈下, 慣習驕吝, 互尙荒佚, 以歡宴放飮爲豁達, 以珍味艷色爲盛禮)[43]

명말의 사회는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던 시기였다.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원론적인 인간의 욕망이 허용되는 사회였다. 때문에 《金瓶梅》에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경계의 목소리와 욕망을 추구하려는 탐닉의 목소리가 서로 엉켜있게 된 것이다.

작자는 일관된 세계관을 담지 않고 마치 결함처럼 앞뒤가 서로 어그러진 논지와 견해를 표방하여 《金瓶梅》에 대한 일원화된 해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시작부터 마지막 100회까지 수많은 다중적 장치 속에서 변함없이 유지된 작자의 의도이다. 마지막회를 살펴보면 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마지막 100회에 주인공 西門慶은 普靜禪師에 의해 동경 성내의 부호 沈通의 둘째아들 沈鍊로 환생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복자인 아들 孝哥의 몸을

---

42) 吳聿明, <金瓶梅方言新證>,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93. 3

43) 《博平縣志》 卷四 <人道六 · 民風解>(吳晗 外, 《論金瓶梅》,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4, p. 45에서 재인용)

빌어 환생하여 普靜禪師와 함께 출가한다.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여 현실의 욕망세계의 추구를 그리며 동시에 孝哥로 환생하여 출가해 욕망과는 단절된 삶을 살게하는 것은 작자가 시종일관 견지했던 이중적 논지의 자연스러운 결말인 것이다. 따라서 작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결함은 이러한 여러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겠다.

<參考文獻>

《繡像金瓶梅詞話》1~3卷, 臺灣 增你智文化事業公司, 1982

《新刻繡像批評金瓶梅》1~2권, 香港: 三聯書店, 1990

《水滸傳校注》, 臺北; 里仁書局, 1994

黃霖, 《金瓶梅資料彙編》, 北京: 中華書局, 1987

王齊洲, 《四大奇書與中國大衆文化》, 湖北敎育出版社, 1991

周中明, 《金瓶梅藝術論》, 南寧: 廣西敎育出版社, 1992

吳晗 外, 《論金瓶梅》,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4

魏子雲, 《小說金瓶梅》, 臺北: 學生書局, 1988

Peter H. Rushton, *The Jin Ping Mei and the Nonlinear Dimensions of the Traditional Chinese Novel*, Mellen Univ Press, 1994,

C.T Hsia, *The Classic Chinese novel*, Columbia Univ. Press, 1968

Andrew Plaks, *The Four Masterworks of The Ming Novel*, Princeton Univ. Press, 1987